

Th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e

World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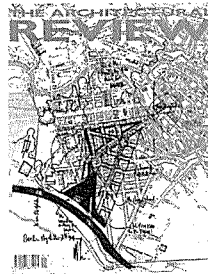
a+u

신건축

The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1월호

이번호는 유명 건축가들에 의해 새로운 건물군이 지어지고 있는 베를린 Potsdamer Platz를 소개하였다. 렌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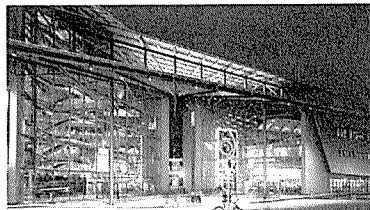
피아노의 Debis 지구, 헬무트 안의 Sony 지구, 니콜라스 그림쇼의 베를린 상업지구 등이 자세히 다뤄졌으며, 인테리어는 최근에 개항한 책람콕 공항의 케세이퍼시픽사 승객전용라운지가 소개되었다.

■ Potsdamer Platz

독일 재통일의 상징이 되는 지역인 Potsdamer Platz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급변하는 20년대를 대변하였으며 뉴욕 타임스퀘어 계획의 모델이 되었다.

Hilmer와 Sattler의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조성된 이 지역의 대지는 벤츠사와 소니사 소유로 얼마전 현상공모를 통해 유명건축가들에게 실험의 장을 제공했다. Potsdamer Platz는 거대한 중심 건물로 둘러싸인 반달모양의 대지가 되었는데 리처드 로저스의 안은 의회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렌쑤 피아노의 안이 벤츠사의 대지에, 헬무트 안의 안이 소니사의 대지에 지어졌다.

▶ 렌쑤 피아노의 Debis 지구



렌쑤 피아노의 Debis 지구

테라코타와 유리로 만들어진 공공건축물로서 그 마감은 인간적 스케일에 맞춰 조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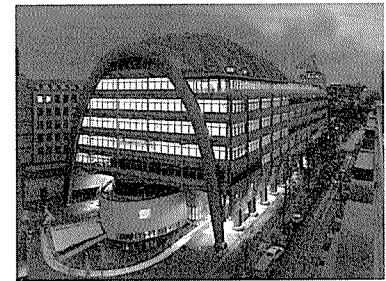
대지 중앙에 있는 Marlene Dietrich Platz는 과거와 현재의 연계에 초점이 맞춰서 조성되었으며, 독일의 이상화된 비전이 형상화된 보행자 영역으로 디자인되었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균형적인 구성에 의해 쇼핑갤러리의 아케이드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Potsdamer Platz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규범은 에너지 절감과 도심지 건설 공사시 공해의 최소화로서, 건물의 외피는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개폐가능한 유리창의 설치 등 냉난방설비가 고려되었다.

▶ 헬무트 안의 Sony 지구

Debis Area의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정적이고 엄격한 Hilmer와 Sattler의 마스터플랜보다 동적이며, 형태적 공간적 기술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질서를 보여주는 안을 제안하였다. 특별한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헬무트 안은 거대한 반 공적인 영역을 타워뒤에 두었다. 그것은 정교한 인장구조의 지붕으로 덮여 있으며, 임시 대화장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 공간은 비, 바람으로부터 차단되며 포럼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임시 대화장과 같은 원형지붕구조, 거대한 트러스, 포럼 등은 이 장소를 진부한 역사양식이 혼재한 지역으로부터 구별짓는다.

▶ 니콜라스 그림쇼의 베를린 상업지구



니콜라스 그림쇼의 베를린 상업지구

Hans Stimmann의 재건축시 지침에 의해 가능한 최대한의 볼륨을 제한한 그림쇼의 안이 당선되었다. 아치형의 지붕은 그러한 의도에 의해 채택되었다. 위쪽의 층들은 아치에 매달려 있는 구조를 취하며, 아래 두 레벨은 수직 기둥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조이다. 이 레벨은 공공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가로쪽에 대하여는 긴

갤러리를 형성한다. 거대한 아트리움은 평면의 중앙에까지 빛을 끌어들이며 온실을 형성한다.

그 밖에 ▶Platzschke, Klotz & Partner의 Adlon Hotel ▶조르지오 그라시의 A+T 지구 ▶GMP Von Gerkan, Marg의 Lehrter역 ▶Axel Schultes의 독일 대사관 ▶GMP Von Gerkan, Marg의 Dresdner 은행 등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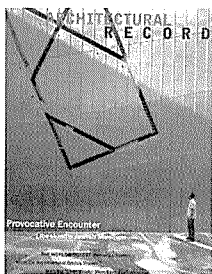
■ 인테리어 - John Pawson의 체크랩콕 공항 라운지 인테리어

Pawson은 캐세이퍼시픽사의 라운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일본식전통 또는 초기 미스나 바라칸 양식의 영향하에 고전적이고 정적인 단순함을 이뤄냈다. 캐세이퍼시픽사는 승객유형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것에 맞춰 디자인컨셉을 주문하였다. 보다 부유하며 젊어진 승객과 특히 비즈니스 여성의 기호에 맞춰 디자인이 전개되었다. 재료는 감각적 의도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주 재료인 회색 화강암은 은빛의 볼트지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Pawson은 재료의 물성을 나타내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건축을 빛, 단순한 형태, 재료로 환원하는 것에 의해 풍부함을 얻어내고 있다.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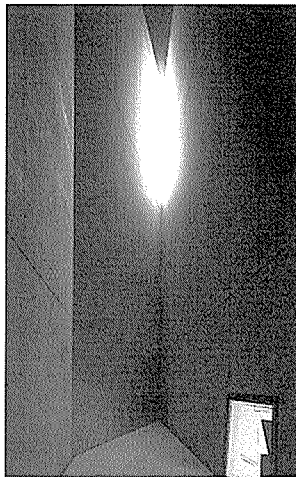
이번호는 10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건축가의 이론이 실제 건축화하는 과정이 드러난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과 쿠알라룸푸르시의 랜드마크가 될 Cesar Pelli



& Associates의 Petronas Towers를 자세히 다루었다. 그 밖에 주위환경에 활력을 부여하는 5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으며, 건물사례 연구로 개발업자들과 건축가가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으로서의 주거를 다루었다.

■ 근작소개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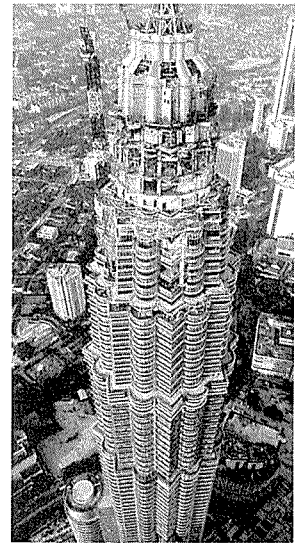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

88년 현상설계의 당선에서부터 99년 1월 개관에 이르는 설계 시공과정을 개관하였다. 리베스킨트는 베를린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형태인 다윗의 별을 조작하여 콘텍스트와 함께 평면 스테디를 하였다. 외벽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선의 개구부는 내부기능이나 공사과정의 논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데 열망, 성취 대 억압, 비극으로 대변되는 베를린의 상반되는 역사가 건물의 파사드에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다. 형태와 패턴의 제스처는 정교한 과정을 거친 않았지만 수학적 공식에 의해 나타나며, 타워와 보이드 공간은 건물의 주된 기념적인 요소가 된다.

▶Cesar Pelli & Associates의 쿠알라룸푸르 Petronas Towers

Cesar Pelli의 Petronas Towers는 쿠알라룸푸르의 대문으로 작용할 랜드마크로서 건축주는 높이보다는 비례의 아름다움을 우위에 두는 것에 동의하였다.

서구건축가가 이슬람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Cesar Pelli & Associates의 쿠알라룸푸르 Petronas Towers

인 기존의 초고층빌딩과 차별을 두고 있으며, 돌지붕의 상업시설과 콘서트홀이 88층 트윈 타워의 공동 포디움에 수용된다.

풍압에 저항하기 위해 '부드러운 튜브'의 구조로 되어있는데, 바깥쪽 링의 16개 기둥이 아치형태의 빔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도록 설계되었다.

■ 주위환경에 개성을 부여하는 5개의 소규모 프로젝트

▶Michael Willis의 샌프란시스코 Hallidie Plaza 엘리베이터는 유명한 Powell가의 케이블카가 반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2개의 펀치드 스테인레스스틸 곡면이 승강기 샤프트를 감싸고 있어서 각도에 따라 승강기가 보이기도 하고 불투명한 면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곡면이 겹치는 부분은 물결무늬를 만들어낸다. 그 밖에 ▶Cox Sanderson Ness의 호주 Ballart시의 관광 안내센터, ▶Clare Weisz Architect의 뉴욕 유태인박물관의 안내센터 ▶Puge + Scarpa의 산타모니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Ford Farewell Mills의 아틀란틱 시티 등대 등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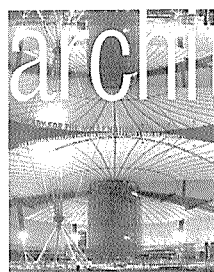
■ 건물유형연구 - Production Housing 상품으로서 개발되는 미국 교외 주택을 특

집으로 다뤘는데, 다음 소개된 네 개의 주거지 사례는 개발업자에 의한 주택이 경제적 투자의 의미뿐 아니라 혁신적 디자인으로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명의 시카고 건축가가 개발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중서부 지역과 기후에 적합한 일리노이주 Prairie Crossing 단지를 설계하였는데, 규격화된 디테일을 가지는 4~6개의 프로토타입의 주거를 제안하여 입주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켰다. 그 밖에 전통적인 교외 주거지에 현대적인 언어로 잘 조화를 이룬 Artech.Inc의 테네시주 Bellevue 우드사이드 단지, 도시 주거자들에게 차고와 뒷마당을 제공한 새로운 형태의 타운하우스인 Booth Hansen Associates의 시카고 이스트위터 플레이스 단지, 집을 처음 장만하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타겟을 맞춰서, 콤팩트하고 소규모 집들로 구성된 Looney Ricks Kiss Architects의 테네시주 멤피스하버 타운등이 소개되었다.

Architecture

1999년 1월

이번호는 휴스턴 Fifthward 지역 재개발 조합에서 저소득층에게 대량 공급할 주거 유형 개발안



들의 채택과 그 안들이 담고 있는 주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소개하였으며, 근작으로 리차드 로저스의 보르도 법원, Schwartz/Silver Architects의 보스톤 뉴잉글랜드 수족관, Hardy Holzman Pfeiffer Associates의 나이아가라폭포 미 이민국, BOORA Architects의 캘리포니아 Autobistro, Dan Solomon

의 LA, Vermont Village, Ten Architects의 멕시코시티 RR 주택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 휴스턴의 Fifthward 지역 재개발 조합

40년대의 지역적 건축의 방갈로와 현대적 조화를 이루는 주택 100채를 91년 이래로 지어왔는데, 이는 건축주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제공과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근에 이 조합이 건설키로 한 모델중에는 콘택스트의 고려를 제외할 만큼 혁신적인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다. Taft Architects의 안은 기존의 네 개의 벽으로 구성되는 공간개념을 전복시켰다.

이처럼 의외의 안들이 환영을 받고 있는데, Saitowitz가 제안한 Modernist Box를 유동적이고 운동적으로 변형한 Bell의 글래스하우스가 그러하다. Mark Wamble의 Binderhouse에는 브랜드 네임 제조회사의 사출성형 부재로 이루어진 가변적인 Klip Binder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 근작소개

▶리차드 로저스의 보르도 법원



리차드 로저스의 보르도 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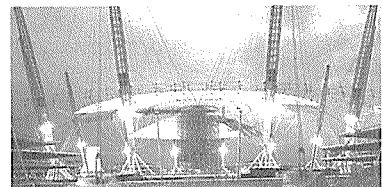
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 법원의 부속동을 계획한 로저스는 고전주의 공식을 그 나름대로 적용시켰다. 육중하고 폐쇄적인 기존 건물이 법의 권위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부가된 건물의 투명성과 가벼움은 현대 법원의 개방성을 상징한다. 법정은 원추형태의 독립된 실의 열로 이루어졌는데, 영구히 둘러싸여져야 하는 것을 이처럼 독립시킨 것이 이 건물의 디자인 전략이다. 그리고 이 실은 투명한 외피에 싸여져 자유로이 서있는 오브제로 다루어졌다.

그 밖에 ▶Schwartz/Silver Architects의 보스톤 뉴잉글랜드 수족관 ▶Hardy

Holzman Pfeiffer Associates의 나이아가라폭포 미 이민국 ▶고속도로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인 BOORA Architects의 캘리포니아 Autobistro ▶Dan Solomon의 LA, Vermont Village ▶Ten Architects의 멕시코시티 RR 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 기술적 정보

▶리차드 로저스의 런던 Millennium Dome 인장구조 지붕



리차드 로저스의 런던 Millennium Dome 인장구조 지붕

Millennium Dome은 2000년을 최초로 맞는 그리니치 반도의 밀레니엄 축제에 관광객들을 추운 겨울의 외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설계되었다. 이 돐의 기본적인 구조 개념은 단순한데, 스틸의 마스트에 부착된 인장 케이블에 의해 형성된 반구형의 캡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David Brody Bond의 역사적인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도서관의 재보수 ▶도시의 온난화 방지를 위한 건축적 조치등의 기술적 정보가 다루어졌다.

■ 기타

▶현대의 종교시설의 예를 보여주는 Kerns Group Architects의 볼티모어 United Methodist Board of Child Care Chapel과 Debartolo Architects의 뉴욕 First Assembly of God ▶LA를 형성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힘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던 City of Quartz, 1990를 통해 도시 역사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한 Mike Davis와의 인터뷰 ▶르 꼬르뷔제 최초의 제자로서, 30년대에 미국에 이주하여 삶의 철학적 방식으로서 모더니즘을 탐구해온 건축가 Albert Frey를 재조명하는 글이 실려 있다.

World Architecture

1999년 2월호

기술정보로 프랭크 게리의 모델링 도구인 CATIA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가 준 비중인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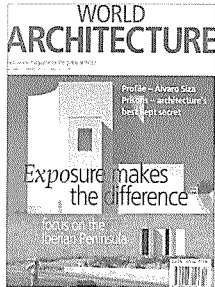
Music Project에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과정 등을 실었으며,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건축환경을 이번호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포르투갈의 대표적 건축가이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알바로 시자의 스케치와 작업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그의 최근작인 Santa Maria Parish 교회, 99년 6월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는 Porto의 Serralves 박물관과 암스테르담 스테델릭 미술관 증축 등을 소개하였다. 사례연구로는 새로운 유형의 교도소 건물을 다루었다.

■ Frank Gehry의 모델링 프로그램 - CAT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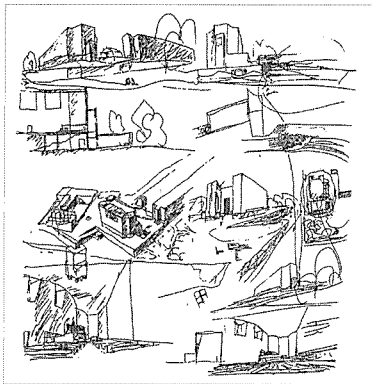
Frank Gehry의 모델링 프로그램 - CATIA

Frank Gehry의 최근작인 Experience Music Project에서도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비정형의 곡면벽으로 이루어졌는데 설계에서부터 재단에 이르는 과정에 항공기 제작 프로그램인 CATIA를 사용하였다. 게리 특유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3차원의 입체를 2차원의 드로잉



으로 옮기는 것이다. CATIA의 사용은 조각적 입체의 구현 뿐 아니라 곡면을 몇 번 휘는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 단가 계산에까지 응용된다. 비행기 설계와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CATIA 사용의 차이점은 건물설계시 지진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고 잦은 설계변경에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다.

■ 지역 특집 - 스페인과 포르투갈



알바로 시자의 프리핸드 스케치

포르투갈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Porto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알바로 시자의 Santa Maria Parish 교회, 99년 6월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는 Porto의 Serralves 박물관과 암스테르담 스테델릭 미술관 증축 등을 소개하였다.

알바로시자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있는 유럽의 건축환경을 비판하면서 건축가의 설계과정은 시공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의 디자인은 사이트의 방문과 자주 출판되었던 그의 프리핸드스케치로부터 시작되며, 이 작업은 그의 프로젝트에 대한 최초의 대면으로부터 비롯된다. 그의 빠른 스케치는 충분한 이해와 시각화를 통해 직관과 정확한 조사의 변증법적 관계를 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 사례연구 - 교도소

전세계에 걸쳐서 건축가들이 교도소 건축에 눈을 돌리고 있다.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이 가능함에 따라 건축가들은 새 기술을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주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들의 권위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 건축적으로 새로운 교도소는 프로그램 개선과 놀랄 만한 비용절

감의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STV Silver & Ziskind의 이스라엘의 벽없는 교도소는 새로운 유형의 교도소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로의 적응과 계도를 위하여 바깥세계와의 차이를 적게 두려는 건축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Phillips Smith Conwell Architects의 호주 브리스베인 Woodford Correctional Center ▶Tarmac Professional Service의 영국 리버풀의 Altcourse 교도소

a+u

1999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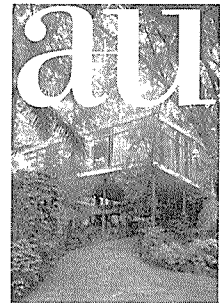
이번호에서는 특집으로 '상파울로의 건축가들 - 브라질 근대건축의 제2세대'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상파울로 건축의 특징을 설명하는 마리아 베아토리스 데 카스트로의 에세이와 함께 리나 보 바르지, 파울로 멘데스 다 로차의 여러 작품들이 소개되었으며,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건축 비엔날레의 리포트 등이 게재되었다.

■ 특집: 상파울로의 건축가들 - 브라질 건축의 제2세대 -

▶상파울로 근대건축의 아이덴티티 형성 대규모로 유입된 이민자들에게의해 상파울로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가 공존하는 분위기를 수용하는 장이 되었다.

1922년 '근대 예술주간'이라는 이벤트는 전통으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였으나, 브라질 도시의 특이성을 변호한 리노레위의 저서 「Estado de São Pau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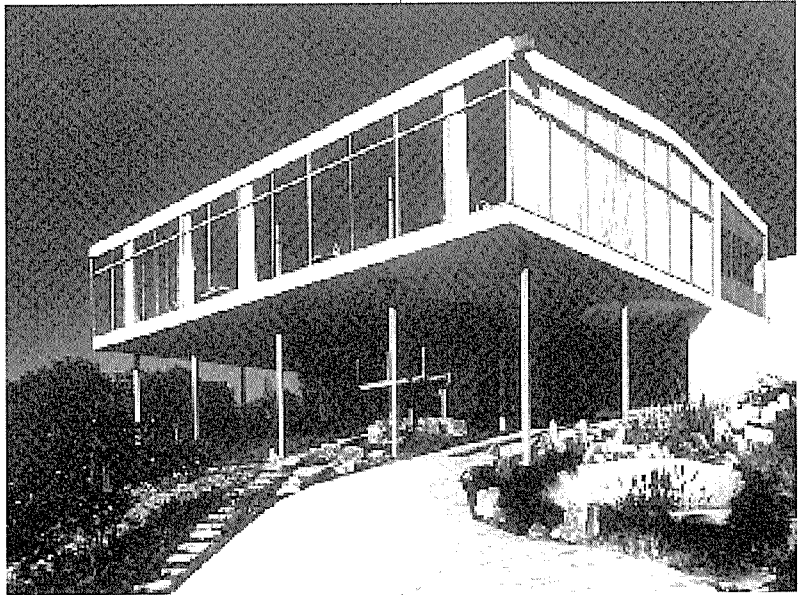
는 앞으로 더욱 굳어질 것 같아 내셔널리즘의 기반이 되었으며, 그레고리 와르샤워스키가 유럽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브라질 최초의 건물을 세웠을 때 그것은 '도리에 반한 과격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1929년 세계대공황과 계속되고 있던 브라질의 내분은 前衛軸 리오데자네이로로 옮기게 된다. 주도니 산업을 커피에만 의존하고 있던 상파울로는 뉴욕증시 폭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공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의 재편은 연방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도시의 확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은 상파울로의 근대 운동의 특징을 만들어내었으며, 새로운 건물들이 연방 위원회에 의해 통합되었던 리오와는 달리 상파울로의 예술가들은 사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문화적인 주도체제를 조직화시켜나갔다.

불안정한 도시의 성장은 새로운 마-모더니즘의 확산을 가져다 주었고, '상파울로派'라 알려진 작가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1950년대는 상파울로가 문화적 고양의 최정점에 이른 시기로 이러한 활기 넘치는 국면에 그 배경을 서로 달리하는 건축가들이 모이기 시작, 문화적 도가니로서 상파울로의 아덴티는 더욱 높아갔다.

▶리나 보 바르지(Rina Bo Bardi)
리나 보 바르지는 1946년 브라질에 온 이탈리아 건축가이다. 그녀는 유럽의 근대 운동과 브라질 문화의 진보적인 융합을 강하게 묶는 다면적인 건축 활동에 착수하였다.

브라질에서 최초의 그녀 작품은 그녀 자신의 저택이다. 아틀라스 산맥의 산림의 경계부를 대지로 하여, 글래스의 상자가 매우 가는 기둥에 의해 떠 있는 "글래스 하우스"가 바로 그것인데, 랜드스케이프에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산림과 공생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브라질과 함께 그녀가 발전시키고자 했던 사물과의 관계성에도 관련된다.

그녀를 브라질 건축계의 간판 무대에 올리게 한 것은 1957년 상파울로 미술관의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에 의한 인상적인 구조를 만들어 내었는데 긴 상자모양의 갤러리를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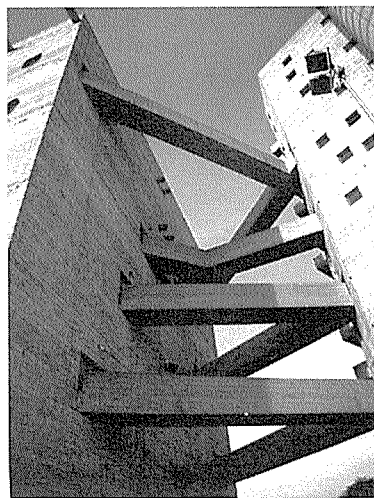


바르지의 글래스 하우스

올림으로써 그 밑의 개방된 공간은 가로와 연결되는 점점이 되고 있다.

이는 브라질 도시 재건에 책임을 맡고 있는 근대 건축이 공헌할 수 있는 능력, 정밀한 구조, 기하학적인 형태라는 상파울로 작풍군들에 의해 전개된 테마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심플하면서 기념비적인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이번호에 소개된 그녀의 작품들은 앞서 설명한 두 개의 작품과 Valéria P. Cirel 저택(1958), Popular Art Museum(1959), Espirito Santo do Cerrado 교회(1976~1982), SESC-Pompéia 공장 레저 센터(1977), Benin 커뮤니티 센터(1987), Miseicórdia Slope(1987), 상파울로 신 시청사 프로젝트



바르지의 SE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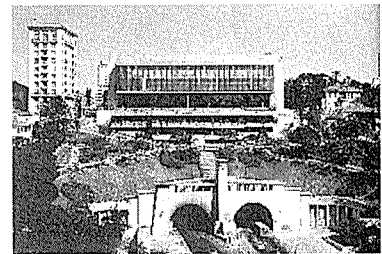
(1990~1992) 등이다.

▶파울로 멘데스 다 로샤

(Paulo Mendes da Rocha)

파울로 멘데스 다 로샤는 상파울로에서 학습한 선배 건축가 조안 바티스타 빌라노바 아르티가스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아르티가스와는 공감대속에 그는 상파울로의 특징이나 혹은 완전히 개인적인 것을 취하면서도 모순되지 않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각각의 디자인은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의 출발이 되는 기술, 장소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건축가의 책임, 대지와 건축의 관계성이라는 상파울로 건축의 테마를 재기하는 그의 시적인 비전으로부터 발생한 독자적인 해답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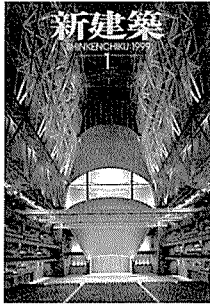
바르지의 상파울로 아트 뮤지엄

이번호에 소개된 그의 작품들로는 Brazilian Sculpture Museum(1986~1995), 국립 상파울로 회화미술관(1993~1998), D. 페드로 2세 공원 버스 스테이션(1996) 등이다.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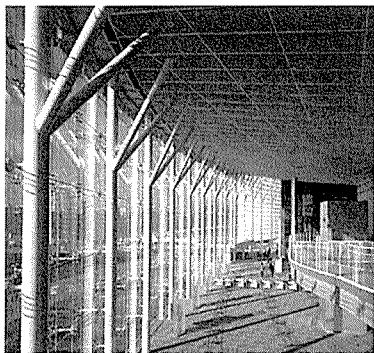
1999년 1월

이번호에 소개된 작품으로는 니이가타 시민예술문화회관(설계: 하세가와 이즈코 아틀리에), 히지야마 혼마씨의 아틀리에(설계: 무라카미 토오루), 노츠하루町청사(설계: 이토오 도오), 50M-역삼(樺森)미술관(설계: 히데아키 카츠라+A·I·R) 등이며, 연재 '전후 모더니즘의 궤적-단계계조와 그 시대'에서는 후미히코 마키와의 대담이 소개되었다. 특집으로는 '젊은 건축가들에게 듣는다 - 앞으로 와야만 할 시대의 시나리오'가 마련되었다.



■작품

▶니이가타 시민예술문화회관(설계: 하세가와 이즈코 아틀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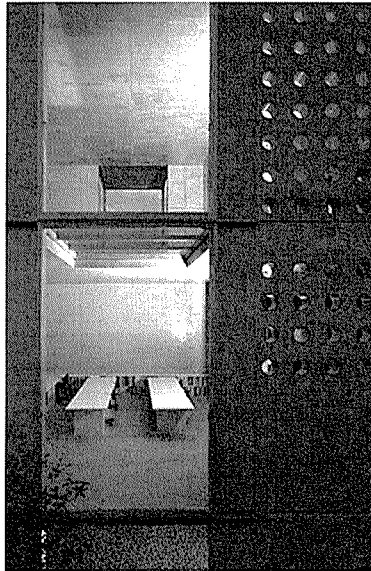


니이가타 시민문화회관

다양한 시설이 함께 들어선 이 거대한 시설물 설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기 위해 작가는 'Islands Hopping'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섬과 섬 사이를 자유롭게 뛰어 넘나든다는 것으로 시설물들이 단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저기로 뛰어 넘나들 듯이 자유로이

다니며 때로는 연결되고 때로는 단절되는 상황을 상상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 작가는 다도해와 같은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렸었다. 더블 스킨으로 된 유리 외피는 이동식으로 된 천공된 알루미늄의 스킨이 차양의 역할을 하면서 크고 작은 극장들을 하나로 묶고, 주변의 시설물들과 브릿지로 연결되어 그의 초기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히지야마 혼마씨의 아틀리에(설계: 무라카미 토오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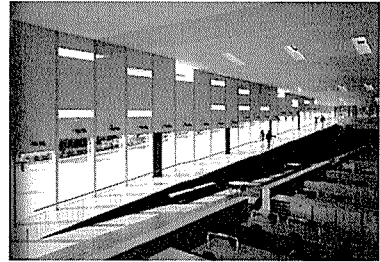
히지야마 혼마씨의 아틀리에

건물의 대지는 서쪽으로는 전차가 다니는 철로를, 동쪽으로는 자연림의 사면을 양쪽 모두 가깝게 면하고 있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인근의 건물들이 마찬가지로 가깝게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다. 건물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대하여 닫힌 형태로 설계되었고, 적합한 곳만을 열어 공간을 꾸민다는 논리로 완성되었다. 순수한 공간의 구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복잡한 디테일을 삼가고 마무리의 완성도를 매우 높였다.

▶노츠하루町청사(설계: 이토오 도오)
완만하게 경사진 슬로프로 길게 들어선 건물은 집무공간을 2층 높이의 집무 공간을 마련 오픈 플랜으로 계획하였다. '관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에의 서비스이며 이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따라서 이들의 움직임을 가장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주민에게도 즐거운 일이 된다는 생각에서 설계를 하였

다'라는 작가의 말이 눈에 띈다.

▶50M-역삼(樺森)미술관(설계: 히데아키 카츠라+A·I·R)



역삼 미술관

건물은 해발 약 750m의 목초지에 홀로 자리잡았다. 건축주는 화가와 공무원 부부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곳으로 이주해 올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분간 주택으로 쓴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을 상정하여 계획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주거시설과 갤러리가 연결된 형태이나 향후 모두 미술관으로 쓰일 것을 감안한 설계안으로 완성되었다.

■젊은 건축가들에게 듣는다 - 앞으로 와야만 할 시대의 시나리오

일본의 젊은 건축가 19명에게서 앞으로 올 시대에 대비한 자신의 모습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애당초 정해진 주제는 伊東豊雄의 「탈근대적 신체상-비평성 없는 주택은 가능한가」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었으나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서로 달라 결과적으로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들을 피력하는 것으로 꾸며졌다.

■연재: '전후 모더니즘의 궤적 - 단계계조와 그 시대' - 후미히코 마키

후미히코 마키와의 대담이 이루어진 이번 연재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항상 깊게 탐구해보는 非마이스터적인 태도'를 강조하였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라이벌이라며 항상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다양성 있는 건축에의 자신의 의견도 피력하였다. 아울러 단계계조의 영향력과 그에게서 독립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다.